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2020년 5 ~ 6월 본당 추천 도서

아이들의 품격
 (글쓴이:프랭크 커닝햄 / 옮긴이: 김영선 / 출판사:생활성서)
 이 책의 원제는 '저녁 기도 시간'이며 인생의 노년기를 비유하는 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영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삶이 건네는 말에 귀 기울인다면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노년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정사가: 15,000원 → 할인가: 10,000원

○ 성당 출입 지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 날씨가 무더워 지는 요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마스크 착용 필수
- 성당 입구에 비치 된 문진표 작성(개인용 볼펜 지참)
- 손 세정제 사용
- 발열 체크
-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성당모임 금지

○ 미사 시간 안내

- 당분간 매 미사당 참석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며,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자와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큰 신자들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관면합니다.

평	월·토	오전 6시
일	화 ~ 금	오전 6시, 10시
주	토요일	오후 7시
일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 오후 5시, 7시

○ 세례식 안내

- 세례식: 5월 24일(주일) 오후 3시, 2층 대성전
- 종합교리: 5월 17일(주일) 오후 8시, 2층 대성전
5월 23일(토) 오후 7시, 1층 프코홀
- 예행연습: 5월 23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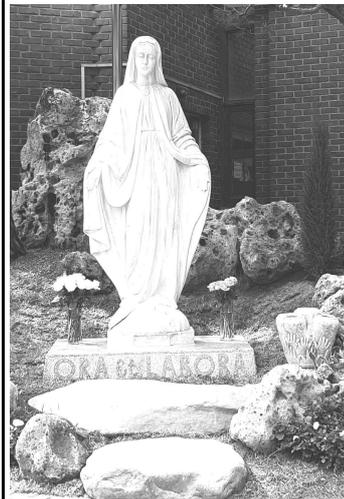
○ 새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 6월 14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 고해성사 안내

- 고해성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직 하실 수 없으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우리 본당 토막상식 - 성모상



성당 마당에 모셔진 성모상은 1982년 당시 사목위원이었던 허윤진 바오로 형제님께서 본당에 봉헌한 《은혜의 성모상》으로故 이순석 바오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당시 성당 입구 오른쪽(지금의 성가정상)에 안치했다가 1995년 11월에 현재 위치인 성당 입구 왼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성모상을 받치고 있는 좌대 안에는 프랑스 아르스(Ars)의 성자 요한 비안네 신부가 살던 집의 벽화와 로마 카타콤바의 흠이 들어 있으며,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모상 바로 옆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첫기적을 행하신 물항아리 여섯개를 조각하여 두었습니다.

○ 5월 '성모의 달' 꽃 봉헌

- 성모의 달을 맞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의 밤 행사

- 5월 30일(토)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성모의 밤 행사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성모동산, 로사리오 동산, 십자가의 길 축복식이 있습니다.
- 지금 새로이 단장 중인 성모동산이 잘 조성되어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가문연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일시: 5월 15일(금) 오전 10시 미사, 2층 대성전

○ 5월 10일(오늘): 본당시설보수 2차현금

성가번호 입 당: 244 예물준비: 511, 512 성 체: 174, 167 파 견: 237



주님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 자애를 베푸소서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20)

두 번째 나눔_하느님의 신비가 숨겨진 기억

마법에 걸린 세상에서 가톨릭적 상상력 발휘하기

20세기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생은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젊었을 때에는 그저 앞만 보고 빨리 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살아온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게 된다.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과거의 집착과 다르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느님의 징벌을 피해 산으로 탈출하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롯의 아내가 어겼을 때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한다. 여기서 뒤돌아본 행위는 과거의 집착이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기억을 하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기억은 추억과는 다르다. 둘 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억이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보존 혹은 변형되는 것이라면 추억은 아름답고 좋았던 것들, 그리운 것들을 떠올릴 때 주로 사용한다. 잊고 싶지 않고 소중한 기억만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만 추하고 못난 기억들, 내가 한 말과 행한 일들, 영원히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억, 그래서 하느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온 기억들을 하느님 은총이 가득한 ‘추억의 상자’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이 먹는 존재로 불림 받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사회학자 앤드루 그릴리는 가톨릭 신자들이 ‘마법에 걸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십자가상, 성모상, 묵주, 성화, 봉헌된 초 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미사와 신심 행위,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 성지 순례 등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과 사건,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회상할 때 그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것을 ‘가톨릭적 상상력’이라 부른다. 하느님의 자녀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띄고 있다면 쉽게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일상적인 것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종교적 감수성’ 혹은 ‘영적인 감수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그 자체로 영적인 체험이 된다.

저자는 마법에 걸린 세상에서 가톨릭적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직업, 부부생활, 아이들 양육 등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기억들, 전쟁, 경제적 고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두운 기억들을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인생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들을 말한다. “나이들이라 불리는 이 영성 훈련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검불은 걸러내며, 금방 타버리는 불꽃에는 주의하고, 우리의 성장을 도와준 것을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88쪽)

2020. 05. 10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부활 제 4주일		6,156,700원	총 세대수				3,342세대
성소주일 2차		3,911,700원	총 납부세대				928세대
교무금		31,300,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15세대
성소후원금(9건)		142,000원	총 납부율 (%)				27.8%
성모의밤 꽃봉헌 (04/29~05/05)				감사헌금 (04/29~05/05)			
한 로사	50,000원	유 요셉	100,000원	이 요한	300,000원	조 제노	500,000원
김 비비안나	50,000원	전 무치아노	50,000원	황 모니카	100,000원	김 스콜라스타카	300,000원
이 그레고리오	50,000원	문 베드로	50,000원	최 마리오시몬	100,000원	김 니콜라오	100,000원
오 아네스	50,000원	임 마태오	100,000원	이 경환프란치스코	50,000원	익명	100,000원
월 세실리아	50,000원	이 요안나	50,000원	윤 아네스	50,000원	-	-
합계:600,000원				합계:1,600,000원			